

現代哲學의 志向 生에서 實存의 길을 檢討함 [제3회]

金午星

生의 第三의 契機는 理解다. 體驗이 生의 內化, 表現이 生의 外化라면, 理解는 生의 統一이다. 體驗은 外物을 內化시키며 表現은 內化된 體驗을 外化시킨다. 이러케 外化된 生을 다시 內化시키려는 것이 理解다. 그러므로 理解는 生의 自己 自身에의 還元過程이라 할 것이다. 生은 항상 外化에의 傾向을 갖고 있으나, 本來 外物을 內化(體驗)시키는 것이 生의 本質임으로 外化된 生(表現)을 다시 內化시키려는 理解가 있어질 것은 극히 當然한 일이다. 實際에 있어 生의 內化와 外化, 즉 體驗과 表現의 一對概念은 오직 理解에 依해서만 解明된다. 왜-그러냐 하면 理解는 表現 즉 歷史的, 社會的 實在을 한 낫의 歷史로서 理解하는 同時에 또한 그것을 生의 表現, 生의 客觀化로서 理解하게 되는 까닭이다. 즉 理解는 歷史의 生命性を 밝히는 同時에, 또는 生의 歷史性を 밝히는 生의 最後의 契機인 것이다. 以上이 딜타이의 生의 哲學의 概要다. 그는 生을 통해서 世界를 解釋하였다. 文化와 社會的 組織을 生의 客觀化로 보고, 各 時代의 文化와 制度를 生의 過程에서 解釋하므로써 그것들을 歷史적으로 批判하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自己의 主著 “精神科學序說”의 副題를 “歷史的 理性的 批判”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事實에 있어는 그는 批判한 것이 아니라, 單히 理解하며, 解釋한 것이다. 그는 近代의 市民文化를 實證主義, 自由의 觀念論, 客觀的 觀念論의 세 形態로 要約해 가지고, 그것을 세 개의 生의 態度에 歸約시키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市民文化는 조금도 批判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哲學의 性格에서 由來된 것이니, 그는 生과 歷史(文化, 制度)를 對立시켜 解釋하면서도 그것을 矛盾關係에서 보지 안코, 矛盾없는 統一, 즉 生과 生의 自己 表現으로서의 歷史와의 對立은 理解를 通하여 다시 生에 統一되는 것으로 본 까닭이다. 理解의 立場에서는 生과 歷史는 本來부터 對立者가 아니라 統一者이다. 그러므로 理解의 立場은 生에 依한 歷史의 批判이 아니라 生의 歷史에

依한 肯定이며 또는 歷史의 生에 依한 肯定인 것이다. 허나 批判은 對立者의 克服을 意味하는 것이니, 이런 意味에서 生의 哲學이 文化批判의 性格을 獲得하게 된 것은 딜타이에서 아니고, 짐멜에 依해서라 할 것이다.

짐멜에 依하면 生은 두 개의 限界 새에 잇는 存在다. 人間은 항상 上下, 左右, 善惡, 知와 未知의 두 限界를 二律背反的으로 갖고 잇는 存在인 것이다. 生이 이러한 限界를 갖고 잇는 것은 모든 限界는 固定的인 것이 아니고, 推移하며 移動하며 飛躍에 依해서 突破되며 또 飛躍이 다시 새로운 限界를 設定하고 잇는 까닭이다. 生에 對한 限界는 한편으로는 無制限的이다. 그것은 우리는 주어진 世界에 억매워 사는 까닭이다. 허나 달은 한편으로는 生에 對한 限界는 無制限한 것은 아니다. 왜-그러나 하면 우리는 주어진 世界를 變更하며 超越할 수 잇는 까닭이다. 이 두 規定은 一見 矛盾되는 듯하나 이 矛盾된 두 規定이 生의 構造를 統一的으로 說明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矛盾은 生의 過程이 根本的으로 固執性和 運動性的의 兩 契機에서 되어지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人間은 항상 自己의 生을 한 개의 限界로서 그것을 固定化시키며 그리하여 그 限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人間은 또한 生의 固定化에 견대지 못하고 그 限界를 突破하려 한다. 事實, 限界의 밖에 서지 안코는, 自己가 限界 안에 잇는 줄을 몰르며, 限界를 限界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限界를 突破하는 者만이 限界 안에 살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限界를 突破하는 것은 結局은 다시 새로운 限界를 設定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生은 항상 限界 안에 있어만 그 限界를 突破할 수 있음으로써이다. 生의 內在와 超越, 또는 生의 自己超越의 內在가 그것인 것이다. 人間은 限界 안에 사는 存在인 同時에 또한 限界를 突破하는 存在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짐멜의 이러한 生의 構造를 그의 文化觀에서 좀 더 仔細히 알기로 하자. 生이 限界를 가지는 것은 生이 “生보다 以上”인 것으로 轉化되는 까닭이다. 生이 單히 動物的 階段을 넘어 精神의 階段에, 그리하여 精神이 다시 文化的 階段에 나아가자마자, 그 가운데는 한 개의 內面的 矛盾이 나타난다. 여기서 文化란 生의 創造者인 運動의 表現, 즉 生의 形式, 또는 生의 客觀態인 것이다. 그런데 文化는 生의 過程의 生産物임에 不拘하고, 그것이 成立되자마자 그 自身論理와 法則性을 가지고 生과의 獨立性, 抵抗性을 보혀 주게 된다.